

지역 매아리

부안군, 범죄예방용 CCTV 확충

부안군은 생활 속 군민 안전을 위해 CCTV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CCTV설치사업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범죄예방용CCTV를 신규 설치하고 야간관제가 불량한 저화질 카메라를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 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부안경찰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용 CCTV 설치해 나가고 있다. 특히 CCTV설치현황, 전자지도DB, 격자데이터, 거주인구정보, 주택정보, 상가정보, 학교정보 등의 수집데이터는 최적의 장소를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서 유네스코MAB 청년포럼 개최

연구·생태관광·교육 등 활동 공유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MAB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오는 7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창 선운산유스호스텔에서 '유네스코MAB 국내청년포럼'을 연다.

포럼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청년의 이해를 돕고,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연구·생태관광·교육 등 생물권 보전과 발전을 위한 청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강연으로 진행되는 첫날에는 각각 MAB와 생물권보전지역과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하는 두 차례의 기초강연이 진행되어 포럼 참가자뿐만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날에는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초청하여 연구·생태관광·특산물 산업 등의 활동을 공유하고, 생물권 보전·발전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포럼 셋째날에는 2013년 군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에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활동을 위한 제안으로 포럼을 마무리 한다.

생태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5월31일까지 이메일(sc.unesco@unesco.or.kr)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스포츠 꿈나무들 모여라!

정읍시,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 위해 만반의 준비

정읍시가 오는 내일부터 28일까지 도내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맞아 경기장 정비와 홍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제인 이번 대회는 정읍에서 핸드볼과 씨름 2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핸드볼 초등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신대인체육관, 핸드볼 중등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정읍국민체육센터, 씨름은 25일부터 27일까지 정읍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연초부터 각

부서별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회 홍보와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경기장 비품, 의료진 배치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경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이다.

특히, 선수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전까지 지속적으로 시설을 점검한다.

시가지는 정비하고 교통대책 등을 마련해 선수단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

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경기장에 배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숙박업과 음식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친절한 손님 응대를 위한 교육과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유진섭 시장은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대회기간동안 열리는 내장산 초록단풍 음악회 힐링 콘서트, 2019 늘푸른 청소년문화제, 오정해의 농담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 정읍을 보여 드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이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부안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민·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안지역 마을의 자원을 조사·발굴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안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부안지역 각 마을의 특색·장점·스토리텔링 등을 발굴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주민주도형 사업 등 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시스템화 해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답 받는 농민, 재능 받는 농업, 사담 찾는 농촌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부안군은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초단계, 활성화단계, 사후관리단계 등 9개 분야에서 부안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공모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주도형 사업 추진으로 관내 마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생생마을 만들기 추진과 교육 및 지원발굴, 농촌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융복합산업협업체 조직 및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민간조직과 행정의 혼연일체가 돼 지역 발전에 앞장서자"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 많은 마을에 있는 모든 자원을 조사 발굴해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업으로 발전시켜 농어촌에 활력과 희망이 넘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새출발 정기총회 가져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이갑상)가 최근 공감플러스에서 새출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갑상 상임의장과 유진섭 공동의장을 비롯한 임원과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이 의장의 기념사와 함께 유진섭 시장과 최낙삼 시의회의장, 정상삼 시의회 자치행정 부위원장, 이남희 시의원, 김적우 전

북서남상공회소 회장, 유혜숙 전 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미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읍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부에서는 허기용 전국지속가능발

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의 강연이 있었다.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설명하고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3부 정기총회에서 의장단과 운영위원, 본과위원을 위촉·선임했고 회계감사와 사무감사도 선출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56개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악으로 풀어내는 동학농민혁명

고창농악보존회, 야간상설공연 '광대, 1894' 내일 개막

고창의 대표 무형문화유산인 고창농악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만났다. (사)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의 2019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히스토리 감성농악 '광대, 1894'가 내일 오후 8시 개막을 시작으로 8월 31일(휴가철 금요 특별공연 7월 28일, 8월 2일)까지 고창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 매주 펼쳐진다.

'광대, 1894'는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맞아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창에 살았던 흥낙관이라는 실존인물과, 그를 중심으로 조직된 재인광대부대를 모티브로 제작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드라마로 풀어낸 이번 공연은 고창농악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농악과 남도 씻김굿, 축방울, 버나놀이, 기놀이 등과 라이브로 진행되는 기악연주가 더해져 기존보다 더욱 다채로워진 공연구성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광대, 1894' 연출가 남기성은 "보통 농악이라고 하면 웃고 즐기고 신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농악을 통해 눈물과 웃음, 감동 등 다양한 감성의 신명을 표현하려고 했다"며 "다양한 연희와 불거리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많은 분들이 고창농악의 신명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악전용극장에는 다양한 전통놀



이체험과, 먹거리 주막이 준비되어 있어 다채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고창 지역 상생 프로젝트 '먹놀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에게 고창의 먹거리, 즐길 거리 이용시 다양한 할인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라북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하나금융그룹이 후원하는 이번 상설공연의 관람료는 1만원이며 티켓은 당일 현장예매와 인터파크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다.

특히, 인터파크티켓 온라인 예매시 60% 할인이 적용되며 고창군민의 경우 50% 할인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파크티켓과 고창농악홈페이지(gochangnggug.org)를 참조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산내면, '희망지킴이' 위촉장 전달식 가져

산내면은 지난 22일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신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희망지킴이' 위촉장 전달식과 함께 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정읍희망지킴이'는 자발적·무보수·명예직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관이 상호 협업하는 능동적인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적안정망이다.

이날, 김건재 산내면장은 일일 강사로 정읍희망지킴이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강의했다.

또, 정읍희망지킴이 운영 활성화 방

안으로 거주자별 소모임을 구성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며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면장은 "면민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희망지킴이들이 솔선수범해 주변의 이웃을 구석구석 살피으로써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바이러스 운동 후원과 홍보에도 동참하여 산내면민에게 더욱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o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생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생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생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